

2000년대 한국 소설에서 ‘다문화가족’의 성별적 재현 양상 연구*

박정애 **

차례

1. 다시금,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2. ‘카르마’와 젠더의 역설: 『나마스떼』
3. 사랑이 거래되는 시대, 무덤을 그리는 몸의 존재 방식: 『잘 가라 서커스』
4. 결론

국문초록

2000년대 한국 소설은 젠더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인이 잃어버린 ‘순수의 저장소’이자 한국적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선량한 피해자로 정형화되어 그리는 경향을 보이는 바, 본고는 여기에 젠더의 관점을 도입하여 그 성별적 재현 양상을 고찰하고자 했다. 그 결과,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 법적, 사회적으로 연민/지원의 대상이 될 때 외국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쉽사리 경멸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민자가 동화/포섭의 대상이 될 때 한국 여성의 배우자가 된 외국 남성 노동자는 차별/배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잘 가라, 서커스』는 오로지 무덤을 상상함으로써 현실의 삶을 견디다가 결국 무덤/죽음으로 도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 림해화의 고백체 서술을 통해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1-B00271).

** 강원대학교 스토리텔링학과 부교수.

사랑이 거래되는 시대, 사랑의 불가능성을 섬세하게 재현해낸 소설이다. 글로벌 자본주의를 관통하는 성적 몸(sexed body)의 유랑기로 읽히기도 하는 『잘 가라, 서커스』는,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정신적 이동기에 집착하면서 개인성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캐릭터로 인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또 다른 타자화의 혐의를 벗지 못했다.

한편, 한국 여성과 네팔 남성으로 이루어진 『나마스테』의 다문화가족에서 젠더는 기묘한 역설의 국면을 만들어낸다. 빈국 출신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함으로써 순식간에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된 여성 주체가 자신도 모르게 가부장제 가족의 위계질서에 균열을 내고 가부장제 민족/국가의 고정화를 거부하는 전복적 주체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초월적 아버지와 대숙자 아들, 그 아들의 영원한 누이/어머니를 통해 구현되는 성스러운 카르마라는 이 소설의 주제의식은 외국 남성성에 대한 타자화와 자국 여성의 신화화에 기여한다.

핵심어 : 2000년대 한국 소설, 다문화가족, 다문화주의, 젠더, 성적 몸, 결혼이민자, 재현, 타자화, 『나마스테』, 『잘 가라, 서커스』

1. 다시금,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현재 세계 인구의 2.5% 가량은 이주민이다. 대한민국도 전체 인구의 약 2.2%가 외국인이다.¹⁾ 이제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이 ‘다문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오랜 세월 ‘배달겨레’, ‘단일민족’이라는 상상적 정체성을 견지해온 우리나라 또한 지구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주’와 ‘다문화’라는 지구공동체의 보편적 의제를 어떻게든 풀어가야만 할 처지에 놓여 있다.

1)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주민은 110만6884명(5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4959만3665명)의 2.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2009년 8월 6일자 기사.

우리 소설문학은 점증하는 '이주'와 '다문화'의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소설은 멀티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위상이 확실히 추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현실을 깊이 있게 재현하고 전망을 모색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상징적 '만국공통어'로 기능하고 있거나와, 한국 소설에서 이주 테마의 서사화는 2005년을 기점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박범신의 『나마스테』(2005), 천운영의 『잘 가라, 서커스』(2005), 김중미의 『거대한 뿌리』(2006), 강영숙의 『리나』(2006), 황석영의 『바리테기』(2007) 등 장편소설과 함께, 동일 테마의 단편이 수록된 김재영의 『코끼리』(2005), 공선옥의 연작소설 『유랑가족』(2005), 정도상의 연작소설 『짚레꽃』(2008), 정인의 『그 여자가 사는 곳』(2009) 등이 잇따라 출간되었다. 이러한 서사물에 대한 학계에서의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도 우리나라로 온 외국계 이민자보다는 세계로 흩어진 한국계 이민자를 다룬 소설 연구에만 치우친 실정이지만, 대강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 필요한 개념과 시사점을 얻도록 하겠다.

영문학자 태혜숙은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여성의 위치에서 '몸으로 글쓰기': 『여성전사』와 『딕테』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중국계와 한국계 미국인 여성작가 두 사람의 작품 세계를 '전지구화 시대, 몸의 존재 방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다. 이 논문에서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몸으로 글쓰기'는 단순히 성적 혹은 또 다른 양성성의 희열이 아니라 성,

2)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최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쓰는 이야기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했다. 우선 자기 소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가 현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를 소재로 글을 쓰는 일이야말로 혼란스러워하는 현대인을 구제할 힘을 갖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야기는 결국 '만국 공통어' 노릇을 하고, 언어와 환경·철학이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영혼 속으로 침잠하면 같은 인간이므로 만국 공통어로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2008년 4월 9일자 『중앙일보』 기사 요약.

계급, 인종의 축들에 교차각인되는 몸의 생생한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³⁾ 국문학자 이해경은 『쇄환의 현대적 서사』에서 ‘조선 시대에 외국에서 유랑하는 동포를 데려오던 일’을 뜻하던 ‘쇄환’이라는 개념을 키워드로 김영하의 『검은 꽃』과 가키네 료스케의 『와일드 소울』을 분석했다. 『검은 꽃』은 구한말 이민선을 타고 멕시코 유카탄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삶을 그린 소설이고, 『와일드 소울』은 1961년, 역시 이민선을 타고 고베항을 떠나 아마존 하구에 도착한 일본인들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이해경은 자의든 타의든 내 나라를 떠난 이를 보호하는 일 또한 새로움을 지향하는 국가의 몫이라 본다.⁴⁾ 국문학자 윤정현은 『한인 소설에 나타난 이주민의 정체성』에서 안정효의 단편소설 『미국인의 아버지』를 통해 이주민으로서의 고통과 좌절을, 한국계 호주인 돈오 김의 『차이나 팬』을 통해 토착민으로서의 동화과정을, 한국계 미국인 이창래의 『제스처 라이프』를 통해 경계인으로서의 자기반성을 도출해 낸다. 그는 듀 보이스의 개념인 ‘이중의식 double-consciousness’), 즉 이민자들이 겪는 존재론적 딜레마, 현지인이면서 동시에 현지인이 아니고 주체이기를 바라면서 항상 타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해결 불가능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이민자들이 소수민족의 문화적 토양을 무시하고 현지인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현지문화를 철저히 배척하고 타자의 전통으로 회귀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됨을 밝힌다.⁵⁾ 독문학자 박정희는 『역사와 문화적 기억의 장소로서의 베를린: 공지영의 연작소설 『별들의 들판』에서 만난 베를린의 한인들』에서 『별들의 들판』

3) 태혜숙,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여성의 위치에서 ‘몸으로 글쓰기’ : 『여성전사』와 『딕테』를 중심으로』, 『영미문화페미니즘』 제11권 1호, 한국영미문화페미니즘학회, 2003.

4) 이해경, 『쇄환의 현대적 서사』, 『현대문학이론연구』 27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5) 윤정현, 『한인소설에 나타난 이주민의 정체성』, 『한국문예비평연구』 21권, 한국근대문예비평학회, 2006.

을 이념의 폭력성이 가장 야만적으로 자행된 우리나라 현대사가 녹아들 어간 도시로서의 베를린과 우리 한인교포들의 이야기로 정의 내린다. 논자의 말대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40년 전, 독일로 떠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모습일 것이다.”⁶⁾

살펴보았다시피 우리나라 문학연구자들 사이에서 디아스포라, 다문화주의 문학 연구는 세계로 흩어진 한국계 이민자를 다룬 소설 연구에 치우쳐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삶, 그들과 얽히고설키는 한국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재현하고 다문화사회의 본질적 단면을 예시하는 작품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은 문학연구자들의 관심 조차 ‘동포’ 혹은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에 갇혀 있을지 모른다는 의문을 품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혜경의 『2000년대 가족서사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의 딜레마』는 주목할 만한 논문이다. 여기서 정혜경은 『나마스태』, 『즐거운 나의 집』, 『아내가 결혼했다』 등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2000년대 가족서사가 근대적 주체의 허구성을 또 다른 형태로 반복하는 딜레마에 봉착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다문화주의의 원론적 당위성을 넘어 ‘어떤 다문화주의인가’에 대한 고민과 물음이 한국문학 연구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위 논문에서의 다문화가족이 『나마스태』의 한국 여성과 네팔 남성으로 이루어진 가족, 『즐거운 나의 집』의 모계 가족, 『아내가 결혼했다』의 폴리패밀리를 포괄한 것처럼, 다문화가족이란 동일한 인종/국가/문화권 역의 이성애자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이른바 ‘정상’ 가족의 틀을 넘어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이를테면 이질적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들끼리의 결합, 동성애자/모계/폴리가미까지 두루 아우르는 개념일 터이다.

6) 박정희, 『역사와 문화적 기억의 장소로서의 베를린: 공지영의 연작소설 『별들의 들판』에서 만난 베를린의 한인들』, 『독어교육』 34권,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5.

그러나 본고에서는 훨씬 좁은 뜻으로 사용되는 다문화가족, 즉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에 한정하여 소설 속에서의 성별적 재현 양상과 패턴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텍스트로 박범신의 『나마스테』와 천운영의 『잘 가라, 서커스』를 분석하되 김중미의 『거대한 뿌리』, 공선옥의 『유랑가족』, 정인의 「그 여자가 사는 곳」, 「타인과의 시간」, 김일광의 장편동화 『외로운 지미』 등에 나타난 다문화가족과 비교하기도 할 것이다.

상기(上記) 다문화가족 소재 작품들에서 한국인은 범상치 않은 상처/병/장애를 가진 고독하고 결핍된 존재로,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이 잃어버린 ‘순수’를 내장한 선량한 영혼의 소유자로 정형화되어 그려지곤 한다. 소설이 본디 문제적 인간이 처한 문제적 상황을 형상화하기 마련이란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 캐릭터의 고독과 결핍은 상대적으로 이해될 만하다. 그러나 이들의 재현 과정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일반적인 한국인’ 대(對) ‘외국인과 결혼하는 예외적인 한국인’이라는 이항대립적 타자화의 구도에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잃어버린 ‘순수’의 저장소와도 같은 외국인 배우자의 스테레오타이프는 주체 형성을 위한 도구적 타자화의 혐의를 벗기 힘들어 보인다.

이러한 타자화의 구체적 세목은 ‘젠더’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바, 본고는 특별히 이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결혼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인 남성이 양성화(陽性化)된 국제적 성(性) 유통 시장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배우자를 맞는 일은 사회적 연민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인구 감소 방지, 노동력 확보 등의 차원에서 국가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된다. 반면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그녀의 결정은 쉽사리 분노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정책적 지원의 범주에도 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반응에도 상대 외국인이 백인인지 유색인인지, 부국 출신인지 빈국 출신인지, 전문인인지 생산직인지에 따른, 곧 인종/

국가/계급의 역학 관계에 따른 다양한 차별성이 존재한다.⁷⁾

“탈범주적인 다문화 주체들의 생존의 자유와 삶의 권력에 초점을 맞춘, 아래로부터의, 소수자 연합 정치로서의,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수행적이며, 실존적인 다문화주의는 어려운 숙제이다. 그래도 고민과 논쟁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만 한다. 과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다문화주의인가?”⁸⁾ 허구적 서사인 소설의 욕구는 독자를 즐겁게 하고 싶어 하는 낭만적 충동과 독자에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고자 하는 교훈적 충동으로 나뉘는데⁹⁾, 다문화가족 소재 소설의 경우 압도적으로 교훈적 충동의 지배를 받고 있다. 2000년대 한국 소설가의 교훈적 충동이 목표하는 새로운 관점 또한 두말할 것도 없이 다문화주의이다. 문제는 다시금,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하는 것이다. 『나마스떼』에는 상처 많은 한국인 여성과 네팔인 이주노동자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 ‘카르마’로 엮이면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이 등장한다. 『잘 가라, 서커스』에서의 다문화가족은 장애가 있는 한국인 남성이 결혼원정을 통해 조선족 여성을 데려옴으로써 성립된 것이다. 본고는 계급/민족/국가 범주와의 연관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젠더 범주에 초점을 맞추어 두 작품의 다문화가족을 분석함으로써 오늘의 다문화주의 담론에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7) 젠더라는 단일 범주에 집착할 경우 젠더 범주 외의 민족, 계급 등 다양한 요소들과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는 측면을 놓칠 수 있다. 김복순은 현실의 구체성을 사상시킬 수 있는 ‘범주 중심성’ 개념 대신,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범주와 부차적으로 작동하는 범주를 함께 검토하는 ‘범주 우선성’ 개념을 활용하여 식민지 시기 최정희 소설의 내적 연속성을 밝혀낸 바 있다. 김복순, 『‘범주 우선성’의 문제와 최정희의 식민지 시기 소설』, 『상허학보』 23집, 상허학회, 2008.

8) 오경석,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2009, 54쪽.

9) 로버트 솔즈, 로버트 켈로그 공저, 임병권 옮김, 『서사의 본질』, 예림기획, 2001, 24~25쪽.

2. ‘카르마’와 젠더의 역설: 『나마스테』

한국의 법체계와 사회적 통념은, 결혼 브로커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남성의 국제결혼보다 사적인 애정에 기반을 둔 여성의 국제결혼에 훨씬 더 냉담하고 비판적이다.¹⁰⁾ 남성의 국제결혼은 민족의 순수성을 흐리기는 해도 어쨌든 국민의 수를 늘리는 생산적인 일인 데 반해 여성의 그것은 남의 나라 국민을 늘려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계혈통주의적 사고의 발로일 터인데, 이런 사고 하에서는 민족의 출산 자원인 여성이 결혼 못한 수많은 동족 남성들을 쫓겨 두고 외국 남성, 그것도 선진국 출신의 백인 남성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이주노동자와 결혼하는 행위가 거의 민족에 대한 배신으로 낙인찍히는 형국이다.¹¹⁾

10) 한국인으로서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동일함에도 외국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았다.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함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은 시민권자가 되지 못하는 물론 체류 자격(비자)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출산한 자녀들은 당연히 한국 국적을 얻었지만, 외국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출산한 자녀는 출생지가 한국이고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적 취득이 불가능한 외국인으로 살아야 했다.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고 외국인 신부들도 자동국적취득 조항이 삭제되면서 F-1 비자로 체류 자격이 제한되었지만, 그 F-1조차도 외국인 남성 배우자들에게는 요원한 것이었다. 제도적 차별에 대한 당사자들의 꾸준한 저항이 이어지면서 2000년 출입국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들은 F-2 비자를 통해 노동권과 거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덕분에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일이 많이 쉬워지기는 했지만, 한국 여성이 가난한 이주노동자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당하는 인격적 무시와 냉대는 여전하다. 정혜실,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여성들의 이야기』, 오경석 외, 앞의 책, 169~176쪽 참조.

11) 보도 직후 서울에 사는 27살의 김아무개씨가 전자우편을 보냈다. “한국 중년 남성들의 따가운 시선과 모욕”에 대한 경험을 들려줬다. 김씨의 남편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백인이다. 부부는 지난해 12월3일을 잊을 수 없다. 혼인신고를 한 날이었다. 예기치 않은 모욕을 당한 날이기도 했다.

부부는 명동 거리를 나란히 걷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양복을 차려입은 한국인 중년 남성이 걸어왔다. ‘중년의 양복 사내’는 고개를 흔들고 혀를 끌끌 찼다. “에잇, 양공주.

『나마스테』의 다문화가족 또한 그러한 인종차별과 중첩된 성차별적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작품에서 1인칭 화자 신우는 LA 흑인폭동 때 흑인들의 총격(銃擊)에 아버지와 막내오빠를 잃고 듀 보이스가 말한 이중의 식의 딜레마에 시달리다 못해 한국으로 역이민을 왔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인종차별로 얼룩진 성장기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선택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은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6개월 만에 끝이 난다. 이혼한 뒤에는, 돈벌이만이 인생의 목표인 작은오빠의 옷 공장과 옷가게에 갇혀 이십대의 대부분을 보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햇빛 밝은 거리에 나가기 싫어 일부러 밤 근무를 자원하면서 자의식의 어두운 방에 스스로를 유폐시킨 채 희망 없이 살아가던 그녀에게 구원의 ‘만트라’처럼 순수하고 환한 본성의 한 남자가 다가온다. 서른 살인 그녀보다 다섯 살이 적은,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카밀이 그이다. 그는 산벚꽃 흩날리는 봄날, “세상이 화안해요.....”, “나마스테”라는 인사와 함께 신우에게 “세상의 한 귀퉁이가 새치름히 환해지고 있다”¹²⁾는 느낌을 선물한다.

더럽게...” 김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중년의 양복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 “양공주, 더러운 년, 창녀, 후커(hooker), 호어(whore)” 등의 욕설을 2개 국어로 쏟아냈다. “네 부모가 불쌍하다. 어디서 너 같은 것을 낳았느냐. 너 영어는 할 줄 알면서 그 남자 옆에 있는 거야?” 참혹했던 그날의 기억에 대해 김씨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경찰서에 바로 끌고 가겠다”고 썼다.

또 다른 독자 최현정(37)씨는 영어학원 강사다. 3년 전 뉴질랜드인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은 혼혈이다. 아버지는 파키스탄에서 이민왔고, 어머니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백인이다. 그의 외모는 파키스탄 출신인 아버지 쪽을 닮았다. “함께 있으면 한국 남자들이 저를 뚫어저라 쳐다봤어요. ‘수많은 한국 남자를 놔두고 왜 외국놈을 만나고 다니느냐’, 그 눈길들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했죠.” 정작 신기한 일은 따로 있었다. 남편이 유창한 영어를 시작하면 한국 남자들의 눈길이 사그라졌다.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계속 쳐다봐요. 그런데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는데도 영어를 아주 잘한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눈길을 돌려요. 후세인 교수의 영어는 유창하지는 않다. 그의 영어가 ‘네이티브’(native) 수준이었다면 ‘양복 사내’도 좀더 정중하게 대했을까. 『한겨레21』 778호 기사.

12) 박범신, 『나마스테』, 한겨레출판, 2005, 45쪽. 이후의 소설 인용은 쪽수만 명기함.

카밀은 네팔에서 카펫 공장을 하는 부유한 집안의 장남으로 경제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 사비나를 찾기 위하여 한국으로 온 불법체류 노동자이다. 카밀의 세계관으로 볼 때, 사비나에게는 병든 부모와 줄줄이 딸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힘겨운 부양의 카르마가 있다. 또한 부유한 아버지의 그늘에서 철없는 말썽꾸러기 아들 노릇을 했던 카밀에게는 그런 사비나에게 한없이 헌신해야 하는 카르마가 있다. “한 방울의 독으로도 죽음에 이르고,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는 게 카르마”(63쪽)이기 때문에 카밀은 사비나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도둑질을 당해도 결코 사비나를 미워하지 못한다. 카밀과 사비나가 신우네 집 빈 방에 머물면서 신우는 두 연인의 ‘카르마’에 엮여 들어가기 시작한다.

사비나를 쫓아 그가 비 젖은 거리를 떠돌든 말든, 그의 말대로 그것은 그의 카르마일진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도 다 있지, 그의 카르마가 사비나의 카르마를 쫓듯이, 나의 카르마가 그의 카르마를 쫓고 있다고 나는 느꼈다. 어딘지 모르게 운명적으로 느껴지는 예감이 아닐 수 없었다.(64쪽)

결국 신우의 예감은 맞아떨어진다. 신우는 불가항력적으로 카밀을 사랑하게 되고 그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으며 카밀이 참여하는 이주노동자 운동을 몰심양면으로 돕는다. 신우는 카밀을 통해 자기 안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지만, 카밀은 이주노동자 동료들의 연이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목격자가 되어야 하는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화안해요.....”라고 하던 빛의 세계관을 “세상이 캄캄해요.....”라고 하는 어둠의 눈에 내어줘 버린다. 마침내 차가운 현실에 절망한 카밀이 ‘더 이상 죽이지 마라’라고 쓰인 검은 현수막을 들고 불꽃이 되어 투

신할 때, 신우는 그를 온몸으로 받아 안은 채 산화(散華)한다.

신우와 카밀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애린은 그 순간을 이렇게 해석한다.

어머니는 다만 깊은 사랑으로 불꽃이 된 아버지를 당신 품 안에 안아서 살릴 수 있다고 믿었을 터였다. 갈망과 헌신의, 모기가 어머니를 아버지에게 밀어냈을 것이었다. 함께 죽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것은 잔인하고 뜨거웠던 하나의 카르마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카르마들이 탄생되는 오묘한 틈이었을 것이었다. 어찌면 참된 본성의 빛이 떠오르는 다르마타 바르도의. (379쪽)

이것은 애린의 해석이면서 동시에 작가 박범신의 해석으로 읽힌다. 적어도 이 작품 속에서 작가는 이 모든 사랑과 비극의 드라마가 카르마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며 카르마의 완성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화적 동심원으로 수렴되는 문학적 상상력이 “현실의 구체적인 세목과 질적 차이를 모두 버리고 형이상학적 이데아로 낭만적으로 회귀하고 마는 것”¹³⁾이 이 작품의 맹점이라는 정혜경의 지적은 타당하다. 이 작품이 『잘 가라, 서커스』 등 유사 소재를 다룬 다른 작품에 비해 사회문제로서 이주노동자의 현실 재현에 대단한 공력을 들이고 있음에도 독자들에게 현실의 표층 깊숙이 숨은 어떤 전망을 찾아내어 보여주기보다는 카르마라는 초월적 어휘의 아우라에 묻혀버린 까닭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쫓고 쫓기는 카르마의 연쇄로서 이 작품의 플롯은 충분히 아름답고 흥미롭지만, 끔찍한 노동착취와 인종차별, 그것을 조장하는 시스템조차도 카르마의 완성을 향한 소품으로 기능할 때, 카르마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민중의 실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젠더 역시 이 작품, 그리고 이런 형태의 다문화가정에서 기묘한 역할

13) 정혜경, 『2000년대 가족서사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의 딜레마』, 『현대소설연구』 40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47쪽.

의 국면을 보인다. 가부장제 민족주의적 사고체계에서 자국 남성을 배반한, 혹은 외국 남성에게 빼앗긴 여성으로 인식되는 순간,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여성은 끔찍한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된다. 『나마스테』에서 신우가 가진 아이의 아빠가 네팔 사람 카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작은오빠는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지우라는 협박과 함께 “천치 같은 년!”(184쪽)이라고 신우를 모욕한다. 김중미의 『거대한 뿌리』를 보면, 진보적 사회운동가인 화자조차 동생처럼 돌봐온 이웃 아가씨 정아가 이주노동자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연민과 두려움을 숨기지 못한다.

“정아야, 내가 말한, 너다워지는 거, 당당하게 사는 건 네가 아무런 미래도 없는 이주노동자랑 연애하고, 그래서 스물둘에 덜컥 임신을 해서 애 엄마가 되라는 건 아니었어.”

내 말에 정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볼멘소리로 물었다.

“아무 미래도 없는 이주노동자라니요? 그럼 난 뭘데요? 나는 미래가 있어요? 선생님 친구처럼 이주노동자를 돕는 활동가는 괜찮고, 이주노동자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아이를 갖는 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도대체 뭐가 달라요? 선생님도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저랑 자히드 관계를 이해할 줄 알았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말을 못한 거는 다만, 다만 내가 덜컥 임신부터 한 때문이었어요.”¹⁴⁾

한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의 결혼을 승인받는 일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법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다.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취화뿐일 텐데, 그것 자체가 오랜 시간을 두고 험난한 제도의 관문들을 통과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데”(180쪽) 신우는 큰 절망을 느낀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한국 여성이 외국인 배우자와 가족을 구성할 때,

14) 김중미, 『거대한 뿌리』, 우리교육, 2005, 24쪽.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부장제 가족의 위계질서에 균열을 내고 가족/민족/국가의 고정화를 거부하는 전복적 주체로 거듭난다. 딸리가 말하는 “남근 중심적 체계에 협조하도록 사주 받은 여성 로봇”¹⁵⁾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가부장제의 이항대립적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해체하는 서발턴 여성 전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녀는 우선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민족의 신성한 피를 보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순결한’ 딸, 누이, 아내, 어머니로 기능하기를 거부한 존재이다. 더구나 한국 땅에서 외국 남자가 가부장 노릇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한국의 가부장제는 그녀를 혐오하면서도 그녀로 하여금 자식에게 자기 성을 물려주고 호주가 되도록(호주제가 폐지되기 전에) 함으로써 부계사회의 철칙을 스스로 깨뜨린다. 신우 또한 아버지/남편/오빠라는 ‘가장(家長)’의 그늘 아래 “보호받는 삶으로부터 보호자가 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되는 지점”(201쪽)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한다. 그러나 전쟁과 가난이 만든 ‘억척어멈’이 부르주아 결혼 이데올로기의 허위의식을 폭로하는 한편으로 여전히 가부장제를 밑바닥에서 떠받치는 ‘노새’ 역할을 하는 것처럼¹⁶⁾, 신우와 같은 경우의 한국 여성도 가부장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동시에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억척어멈의 딜레마에 쉽사리 빠져버린다. 기실 신우는 가부장제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녀가 진심으로 욕망하는 바는, 현존 가부장제가 자신의 가족을 ‘정

15) 로즈마리 통 외, 이소영 외 편역, 『자연, 여성, 환경』, 한신문화사, 2000, 20쪽.

16) 조라 닐 허스턴, 이시영 역,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 문학과학사, 2001, 25~26쪽.

“아가, 이 할미가 알고 있는 한에는 백인이 이 세상의 지배자다. 어쩌면 저 먼 바다 어딘가에는 흑인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우린 우리 눈으로 본 것밖에 알 수 없다. 백인은 자기 짐을 팽개치며 흑인에게 그걸 주워들라고 한다. 다른 수가 없는 흑인은 그걸 주워들지. 하지만 자기가 그걸 저 나르지 않아. 자기 여자한테 넘겨 버리지. 내가 아는 한 흑인 여자는 이 세상의 노새다. 네게는 사정이 달라지길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여, 주여, 주여!”

상 가족'으로, 카밀을 어엿한 '가장'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 화주의를 지향하는 『나마스떼』의 여성이 “전통적으로 익숙한 ‘누이, 어머니’의 상징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¹⁷⁾은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소년이 내 젖을 만지며 웃었다.

(중략)

이제 생시의 카밀과 카르마의 시간을 따라온 무화과나무 밑의 나 사이엔 아무런 경계도 없었다. 환생의 바르도에 의해 내 몸은 단단해졌고, 동시에 무한경계로 열려 있었다. 잠든 그에게 젖을 내줄 때에 나는 전혀 부끄럽지도 민망하지도 않았다. 그의 입이 아침내 내 젖기슴의 한권을 부드럽게 물었다. 마르파 고유의 모랫바람은 계속 불고, 텅 빈 것 같은, 어떤 흰빛이 이윽고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나는 느꼈다. 다르마타의 축복이 내게 온 것이었다.

그 순간 카밀이 내 젖꼭지를 맹렬히 빨아먹기 시작했다.(161~162쪽)

민족의 순결한 누이/어머니 되기는 거부했으되 순수한 외국 소년의 누이/어머니 되기는 자청하는 신우의 캐릭터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의 시어(詩語)로 집약되는 한국 문학의 모성 콤플렉스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누이/어머니가, 여성이 욕망하는 여성해방적인 그것이 아니라 남성/남성작가가 욕망하는 영원한 타자로서의 누이/어머니라는 사실에 있다. 작가 내면의 타자로서 소년의 욕망의 역사는, 언제나 둘 이상의 여자를 필요로 했다. 소년을 괴롭히고 배반하고 착취하는, 매력적이지만 이기적인 사비나 계열의 요부(妖婦), 그리고 소년을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지는, 바보스럽지만 헌신적인 신우 계열의 누이/어머니가 그들이다. 『나마스떼』의 서사를 장악하고 있는 카르마란 실상 소년의 ‘순수한’ 욕망일지 모른다.

17) 정혜경, 앞의 글, 45쪽.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 남성 배우자의 스테레오타입화된 모습이다. 실제로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 남성의 국적은, 중국, 한국계 중국인, 미국, 캐나다, 파키스탄, 일본, 방글라데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필리핀, 네팔¹⁸⁾ 순(順)이며, 일부다처제, 여성차별, 라마단,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식문화 등으로 한국여성과의 결혼생활에서 종교·문화적 갈등의 소지가 큰 남성 배우자는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이다.¹⁹⁾ 그러나 『나마스떼』의 카밀과 『거대한 뿌리』의 자히드는 모두 폭력성과 공격성이 거세되고 종교·문화적 충돌 요소가 적으며 더없이 순하고 자상한 영혼을 지닌²⁰⁾ 네팔 남성이다. 왜 오늘날의 한국 소설은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 배우자를 ‘착한 네팔 남성’으로 설정하는 것일까. 한국인의 상처를 위로하고 결핍을 채우며 잃어버린 순수를 일깨울 도구적 타자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부유한 집안의 장남임에도 오로지 사랑을 쫓아 한국으로 온 외국인, 버림받고 배신당하면서도 한 여자에게 끝없이 헌신하는 연인, 동료의 불행을 지켜보다 못해 소신공양(燒身供養)하는 이주노동자로서 카밀의 캐릭터는 현실적이라기보다 이상적이다. “자본주의 세계통합 국면에 놓여

18) 2008년 기준으로 중국인 배우자가 9,257명, 한국계 중국인 배우자가 6,189명, 미국인 배우자가 1,053명인 데 비해 네팔인 배우자는 125명에 불과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http://immigration.go.kr/>) 통계자료실, 국민의 배우자 현황 통계자료 참조.

19) 4명의 아내를 용인하는 교리 때문에 본국에 아내를 두고 한국여성과 이중으로 결혼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된다. 실제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 피해자모임 인터넷 카페가 운영되고 있기도 한데, 개신교 단체와 연관된 곳으로 보인다. <http://cafe.daum.net/leavingpakistan> 참조.

20) 김일광의 장편동화 『외로운 지미』(현암사, 2004)에서 지미의 아버지 히론 페루키 역시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으로 형상화된다. 히론 페루키의 국적은 마을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못 살아서 돈 벌러 온 사람이니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불명확하게 처리되거나, 가무잡잡한 피부, 비영어권, 종교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네팔, 스리랑카 등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진 우리의 삶이 미치광이 삶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티베트 말로 모귀(MÖGÜ), 갈망과 염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끈질기게, 상주불멸의 본성과 같은 카일라스를”²¹⁾ 품게 하고 싶은 작가의 교훈 충동이 순수의 저장소와도 같은 소년의 형상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소년이 닳고자 하는 원초적 순수의 저장소는 “지구의 배꼽, 지구의 영혼”(137쪽), “죽음도 삶도 없는, 성스런 산”(85쪽), 카일라스다. 카일라스는 이 작품에서 시종일관 송고미를 떠먼저 카밀과 카밀의 아버지 등의 개인을 넘어 형이상학적/종교적 이데아로서의 아우라를 보여주는 ‘초월적 아버지’로 기능한다. 2021년, 열아홉 살이 된 애린이 아버지의 나라 네팔을 찾아가는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카일라스 산이 모순된 현실과 비극적 카르마를 넘어서는 신화적 상상력의 정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초월적 아버지/신을 읽을 수 있다.²²⁾ 성부(聖父)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려면 성자(聖子)와 성모(聖母)가 필요할 터이다. 사실상 소설의 결말에서 카밀은 큰 의로움을 위하여 기꺼이 제 목숨을 내놓는 대속자(代贖子)로, 신우는 아들의 주검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성모(聖母)의 형상으로 구현된다. 작가의 열렬한 교훈 충동이 이룩한 이 성스러움이 한편으로 외국 남성에 대한 타자화와 자국 여성의 신화화에 기여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1) 박범신, 앞의 책, 작가 후기, 398쪽.

22) ‘초월적 아버지’로서의 카일라스 산에 관한 논의는, 한국여성문학학회 제 22회 정기 학술대회 당시 본고에 대하여 토론을 맡아준 정혜경 교수의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3. 사랑이 거래되는 시대, 무덤을 그리는 몸의 존재방식 : 『잘 가라 서커스』

우리나라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수는 남성에 비해 7배 이상 많다.²³⁾ 이른바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가 실감나는 대목이다.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는 국가간 경제적 차이를 사적 차원의 성적 결합으로 변화시키는 국제결혼 시장을 빠른 속도로 키워왔다. 한국의 국제결혼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마찬가지로 국제노동분업의 일환으로 촉발되었으나 산업화, 도시화의 진행으로 농촌을 떠난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대체하기 위해 주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의 외국인 여성들이 혼인이민을 음으로써 형성되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아시아 여성들이 대부분 농촌이나 도시의 공장에서 여성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아시아 여성들은 하위적인 계층에서 이산을 경험한다. 이러한 하위 계층에서의 이산은 이주민으로서의 '타자성'과 함께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 권력구조에 의해서도 '타자성'에 기반한 정체성을 형성하기 쉽다. 제3세계 여성으로서의 타자의 정치학이 남성의 타자로서의 여성, 서구의 타자로서의 경제적 하층 개념의 이주민이라는 이분법적 논의를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민하(Min-ha)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아시아 여성들은 그러한 이분법적 구조의 '타자'로서 정체성을 형성한다.²⁴⁾ 이 여성 이주자가 중국이나 일본, 몽골 출신이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전자에 비해 인종적 유사성이 낮은 국가 출신일 경우에는 계급, 젠더와 아울러 인종적 타자성

23) 2008년 기준으로 총 122,552명 중 남자 14,753명(12%), 여자 107,799명(88%).
앞의 법무부 통계 참조.

24) 이수자, 『이주 여성 디아스포라 :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제38집 2호, 한국사회학회, 2004, 198~199쪽.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된다.

『나마스떼』, 『거대한 뿌리』, 『외로운 지미』의 남성 배우자와 달리 한국 소설이 선택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는 대체로 현실²⁵⁾과 근사(近似)하다. 『잘 가라, 서커스』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이, 『유랑가족』에서는 한국계 중국인과 필리핀인이, 『그 여자가 사는 곳』과 『타인과의 시간』에서는 베트남인이 한국 남성의 배우자가 되어 한국으로 이주해 온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산업화된 국가에서의 이른바 ‘여성노동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그녀들의 몸과 노동력을 표류시킴으로써 이윤을 축적한다. 남녀 화자가 갈마들며 자기 이야기를 서술하는 형식의 『잘 가라, 서커스』에서 여성 화자 림해화는 조선족 마사지사 출신의 결혼이민자다. 당연히 그녀에게는 인종, 언어보다 계급적, 젠더적 타자성이 문제시된다. 왜소한 체격에 내성적인 성격의 그녀는 기질에 맞지 않고 고되지만 한 마사지사 생활에서 미래를 찾지 못한다. 더욱이 열 살 때 발해 정효공주의 무덤 발굴지에서 만나 정을 준 청년이 한국으로 가버린 다음부터는 발 딛고 선 현실에서 마음이 떠나 있던 상태다. 그녀가 현실을 벗어나 정인(情人)이 거주하는 국가로 이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길뿐이다. 『나마스떼』의 신우, 『거대한 뿌리』의 정아와 같은 한국여성의 국제결혼이 사적 애정의 결실인 것과 달리, 림해화의 국제결혼은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희망 없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다.

이 작품의 남성 화자는 해화의 남편도 정인도 아닌, 미혼의 시동생 이윤호다. 윤호는 어린 시절 자기를 웃기려고 서커스를 해보이다 목을 다친 형 인호를 위해 성적 친밀성과 돌봄노동을 제공해줄 여자로 해화를

25) 중국 58,530명, 한국계 중국인 29,518명, 베트남 26,951명, 필리핀 5,657명 순이다. 앞의 법무부 통계 참조. 1992년의 수교, 2003년의 한중 국제결혼 MOU의 결과, 중국은 오늘날 한국 남성들이 가장 많이 배우자를 구해오는 외국이다.

선택, '구매'한다. 그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 형/만이,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한 농촌/3D업종에 대하여 원초적 부채감을 느끼는 현대 한국인의 무의식이 투사된 인물이다. 그는 형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하고 연민하면서도 혐오한다. 그에게 형은, 도의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지만 어디까지나 부담스러운 존재다. 그 불편한 양가감정과 존재의 짐을, 윤호는 해화에게 떠넘긴다. 그런데 형의 여자가 된 그녀가 윤호의 마음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 윤호가 욕망하는 그녀는 물론 그녀 자신이 아니다. '오염'된 한국 여자들과는 다른, 오롯한 '순수'의 저장소로 타자화된 이국 여자인 것이다.

해화와 정인을 만나게 한 운명의 공간인 정효공주의 무덤이 이번에는 윤호와 해화를 이어준다. 온 가족이 함께 놀러간 경복궁 민속박물관에서 꿈에서도 잊지 못한 정효공주묘 모형을 본 해화는 지독한 그리움으로 인한 혼몽 상태에 빠진다. 윤호는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여린 새”²⁶⁾(74쪽) 같은 그녀를 품에 안는다. 순간 윤호를 정인으로 착각한 그녀가 눈물 흘리며 묻는다.

“어째 이제 음까?”

현기증이 일었다. 절벽에 선 것처럼 아찔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깊고 어두운 강물이었다. 나는 여자를 안고 절벽에서 강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물 속 깊이 내려갔다. 커다란 돌덩이라도 안은 듯 끝이 없이 가라앉았다.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그곳이 죽음처럼 어둡고 차가운 곳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 추락할 수 있었다.(74쪽)

같은 상황이 여자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서술된다.

26) 천운영, 『잘 가라, 서커스』, 문학동네, 2005, 74쪽.

“어찌 이제 옴까?”

그가 내 등을 다독였다. 나는 아주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다.(70쪽)

이 작품에서 잠, 고궁, 강물, 울음, 지하도(地下道), 바다, 약(藥)은 모두 어둡고 축축한 죽음의 이미지로서 ‘무덤’으로 연결된다. 무덤에서 만난 사랑을 찾기 위해 몸을 팔다시피 하여 한국으로 온 해화는, 고궁에서 함께 무덤을 느낀 윤호에게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정인의 형상을 덧씌우곤 한다. 해화의 마음이 기미(機微)에 불과한 데 비해 윤호의 마음은 폭발하기 직전에 이른다. 윤호는 그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어머니가 죽기 전에는 공사 현장으로,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는 중국으로 스스로를 유배시킨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해화에게 더욱 의지하게 된 인호의 사랑은 점점 병적인 집착으로 변해간다. 그는 해화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까 봐 그녀의 몸을 자기 몸애다 전깃줄로 결박하고 놔서야 잠을 이룬다. 그러던 어느 날, 해화는 목욕탕 거울을 통해 “피가 흐르고 숨을 쉬는 육체”이지 “뉘이고 갇혀야 할 고깃덩어리”(119쪽)가 아닌 제 몸을 새삼스레 발견하고 여권도 지갑도 챙기지 않은 채, 집을 떠난다.

나를 움직인 것은 바람이었다. 여윈 가슴을 쓰다듬고 생채기 난 손목을 매만지던, 입김처럼 여린 바람. 그 바람이 이제는 기함을 쓰며 내 등을 떠다밀고 있었다. 옷섶을 헤치고 살을 후벼파는 맵짠 바람이 나는 외려 고마웠다. 바람이 아니었다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주 걸음을 멈추어야 했을 것이었다. 바람은 등걸음치는 마음을 후려치는 채찍이었고, 나는 채찍질에 이끌 난 마소처럼 묵묵히 걸을 뿐이었다.(163쪽)

“나를 키운 건 팔할(八割)이 바람”이라는 미당의 유명한 시 구절을 떠

올리게 하는 위 인용문에서 해화의 동인(動因)은 '바람'이라는, 매우 감각적인 문체로 묘사되어 있지만 매우 애매모호한 어휘 하나로 제시된다. 립해화로 하여금 국제 맞선시장으로 나가 애정 없는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가게 한 바람, 다시금 익명의 존재를 거부하고 남편의 집을 떠나도록 해화의 등을 떠민 바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이거나 사물화를 거부하는 인간 본연의 생명력일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여성으로 하여금 여권도 지갑도 없이 양말도 신지 않고 한겨울에 무작정 집을 나서게 하는 욕망 혹은 생명력은 독자에 대하여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해화라는 캐릭터의 개연성 또한 덩달아 약화된다.

류보선은 작품 해설에서 “목소리를 잃었을 뿐 아니라 아직 현실원칙을 자기화하지 못한 채 정신적 유아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형”²⁷⁾에 비하여 립해화를 “강인하면서도 부드럽고 각자가 강한 주체이면서도 타자에 대한 배려를 늦추지 않는 연변 조선족 여인네들의 후예”(269쪽)로서 아름답고도 강한 존재로 명명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립해화 또한 이십대 중반의 어른으로서 현실원칙을 자기화하지 못하고 정효공주묘에서 첫사랑을 만났던 열 살 즈음의 정신적 아동기에 정체되어 있는, 윤희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린 새”(74쪽) 같은 여자이다. 그녀는 “채찍처럼 강한 햇별이 따갑게 쏟아지고”(74쪽) 있는 수면 위의 현실을 외면하고 기어코 물 속으로, 잠 속으로, 무덤 속으로 파고든다. 정신적 아동기에 고집스레 집착하는 그녀에게 햇별 작렬하는 현실의 삶을 견디게 하는 역설적 힘은 무덤에의 상상이었다. 그러나 대책 없는 가출 후의 고단한 육체노동, 성추행, 유산(流産), 황량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그녀의 몸은 “무덤보다 깊은 어둠 속을 헤매고”(237쪽)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상

27) 류보선, 『하나이지 않은 그녀들』, 앞의 책, 260쪽.

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한다. 마침내 상상하는 것도 힘겨워, 자꾸 졸음이 밀려와, 졸음을 견딜 수 없어 또 약을 먹은 그녀는 혼몽 중에 정인을 그리며 독백한다.

그런데 당신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나는 여기에 와 있는데. 당신이 왜 이곳으로 와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왜 여기 왔는지도. 당신 때문이었을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당신 얼굴이 가물가물해. 아무리 기억해내려 해도 기억나지가 않아. 아무래도 약 때문인 것 같아.

언젠가 변기 속에 흘려보냈던 핏덩이를 생각해. 내 몸의 일부였던 그 붉은 덩어리. 나그네의 웃음소리도 들려. 어머니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도. 버리기로 했어. 모두. 그리고 이제 돌아갈 테야. 거기, 따뜻한 무덤 속으로. 내가 살았던 곳으로. 이제 몸을 좀 누어야겠어.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온 걸까? 아, 참 따뜻한 봄별이야.(238쪽)

“기다리라거나 기다리지 말라거나 하는 말도 없이”(34쪽) 돌연 한국으로 떠난 남자를 쫓는 것도 아니고 쫓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모호한 ‘바람’에 떠밀려 표류하는 해화의 유랑기는 이렇듯 허무한 종말을 맞는다. 정효공주묘가 있는 중국에서 그가 있다는 한국으로, 남편의 집에서 다시 길 위로, 한때 그가 있었다는 속초 바닷가에서 약과 잠이 이끄는 따뜻한 무덤 속으로 향하는 해화의 여정은, 이 작품의 맨 처음에 제시된 서커스 장면 묘사와 맞아떨어진다. 사랑이 거래되는 시대에도 사랑이 가능할까? 대체로 사랑이 불가능한 시대, 사랑을 찾아 떠난 서발된 여성의 자기방기적 유랑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공중에서부터 내려온 한 줄 천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 불현듯 사라져버리는 한 판 서커스처럼 끝나버릴 운명이었다. 아내를 찾지 못한 인호가 검은 바다 속으로 몸을 던지면서 “죽음보다 더 독한 슬픔”(245쪽)의 서커스는 마침내 막을 내린다.

살펴보았듯이 『잘 가라, 서커스』는 상업화된 친밀성의 균열과 그 파국

을 섬세하게 그려낸 노작(勞作)이다. 그러나 해화나 윤호·인호 형제 캐릭터의 생동감은 공선옥의 『유랑 가족』에 나오는 조선족 노래방 도우미 명화나 필리핀 여성 반지를 따르지 못한다. 『유랑 가족』에서 돈, 사랑, 가족, 에로스의 동기에 기인하는 명화나 반지의 행동은 독자의 생활적 실감에 맞닿아 있다. 정인의 단편소설 『타인과의 시간』에서 베트남 여성 쑤안이 느끼는 언어적 타자성의 질곡도 아이에 대한 모성적 소통의 욕구로서 그 나름의 절박성을 획득하고 있다.²⁸⁾ 『그 여자가 사는 곳』에서 브로커에게 속아 결혼한 베트남 여성 리엔이 간난신고 끝에 저지른 우발적 살인행각은, 일제강점기 신경향파 소설처럼 도식적인 결말임에도 독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지는 않다. 반면, 『잘 가라, 서커스』에서 해화와 형제의 행동을 추동하는, 무엇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바람’과 ‘안개’의 동기는 자꾸만 독자의 공감의 주파수를 이탈한다.

4. 결론

200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다문화가족’의 성별적 재현 양상과 패턴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 배우자는 젠더에 관계없이 한국인이 잃어버린 ‘순수의 저장소’이자 한국적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선량한 피해자로 정형화되어 그려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성별적 차이가 노정되는 바,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 법적, 사회적으로 연민/지

28) 쑤안은 아이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하여 고국으로 돌아가 버린다. “내 아이한테, 엄마가 아니라, 아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살게 될까 봐..... 견딜 수 없었어요. (중략)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 나라 말로는, 아이와 친해질 자신이 없었어요..... 엄마이면서도 아이와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살아야 한다면..... 너무 가엾고..... 비참하잖아요?” 정인, 『타인과의 시간』, 『그 여자가 사는 곳』, 문학수첩, 2009, 104쪽.

원의 대상이 될 때, 외국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쉽사리 경멸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거꾸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 이민자가 적극적 동화/포섭의 대상이 될 때, 한국 여성의 배우자가 되는 외국 남성 노동자는 노골적 차별/배제의 대상이 된다.

한국 여성과 네팔 남성으로 이루어진 『나마스테』의 다문화가족은 후자(後者)의 상황을 보여준다. 젠더는 이 작품, 그리고 이런 형태의 다문화가정에서 기묘한 역설의 국면을 보이는데, 빈국 출신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함으로써 순식간에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된 여성 주체가 자신도 모르게 가부장제 가족의 위계질서에 균열을 내고 가부장제 민족/국가의 고정화를 거부하는 전복적 주체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카르마 또한 신우와 카밀의 고귀한 자기희생을 이끌어내고 완성하는 동력 이면서 동시에 그 희생의 리얼리티와 변혁적 성격을 무화시킨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초월적 아버지로서의 카일라스 산, 아버지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도록 목숨을 내놓는 대속자(代贖子) 아들, 그 아들의 영원한 누이/어머니를 통해 구현되는 카르마의 성스러움이 한편으로 외국 남성성에 대한 타자화와 자국 여성의 신화화에 기여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잘 가라, 서커스』의 한국계 중국인 립해화는, 산업화된 국가에서의 이른바 ‘여성노동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의 몸과 노동력을 표류시킴으로써 이윤을 축적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그물에 포획된 여성이다. ‘오염’된 한국 여자들과 달리 ‘순수의 저장소’로 타자화된 그녀는 오로지 무덤을 상상함으로써 현실의 삶을 견디지만, 결국 무덤/죽음으로 도피한다. 사랑이 거래되는 시대, 사랑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립해화의 유랑기로서 『잘 가라, 서커스』는, 전지구화 시대를 표류하는 성적 몸(sexed body)의 존재 방식을 섬세하게 그려내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정신적 아동기에 집착하면서 개연성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캐릭터로 인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또 다른 타자화의 혐의를 벗지 못했다.

다시금,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타자화와 상투화를 넘어 탈범주적 다문화 주체들의 육성이 살아 있는 작품이 더욱 많이 창작되고 그 작품들을 통해 고민과 논쟁이 늘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에서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수행적이며, 실존적인' 다문화주의 또한 끊임없이 구성, 재구성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범신, 『나마스태』, 한겨레출판, 2005, 1~399쪽.
천운영, 『잘 가라, 서커스』, 문학동네, 2005, 1~279쪽.

2. 단행본

- 김일광, 『외로운 지미』, 현암사, 2004, 1~188쪽.
김중미, 『거대한 뿌리』, 우리교육, 2005, 1~207쪽.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한울, 2009, 54쪽. 169~176쪽.
정인, 『그 여자가 사는 곳』, 문학수첩, 2009, 1~324쪽.
로버트 솔즈, 로버트 켈로그 공저, 임병권 옮김, 『서사의 본질』, 예림기획, 2001, 24~25쪽.
로즈마리 통 외, 이소영 외 편역, 『자연, 여성, 환경』, 한신문화사, 2000, 20쪽.
조라 닐 허스틴, 이시영 역,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 문학과지성사, 2001, 25~26쪽.

3. 논문

- 김복순, 「‘범주 우선성’의 문제와 최정희의 식민지 시기 소설」, 『상허학보』 23집, 상허학회, 2008, 253~294쪽.
박정희, 「역사와 문화적 기억의 장소로서의 베를린: 공지영의 연작소설 『별들의 들판』에서 만난 베를린의 한인들」, 『독어교육』 34권, 한국독어독문교육학회, 2005, 327~346쪽.
윤정현, 「한인소설에 나타난 이주민의 정체성」,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1권, 한국근대문예비평학회, 2006, 115~135쪽.
이수자, 「이주 여성 디아스포라 :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제38집 2호, 한국사회학회, 2004, 189~220쪽.
이혜경, 「쇄환의 현대적 서사」, 『현대문학이론연구』 27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317~338쪽.

정혜경, 『2000년대 가족서사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의 딜레마』, 『현대소설연구』 40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37~61쪽.

태혜숙,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여성의 위치에서 '몸으로 글쓰기': 『여성전사』와 『티데』를 중심으로』,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11권 1호,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3, 235~255쪽.

4. 기타

파이낸셜뉴스, 2009년 8월 6일자 기사.

중앙일보, 2008년 4월 9일자 기사.

한겨레21, 778호 기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http://immigration.go.kr/>) 통계자료실.

파키스탄*방글라 외국인에 의한 피해자 모임(<http://cafe.daum.net/leavingpakistan>)

Abstract

A Study on Gender-specific Representation Pattern of 'Multi-cultural Family' of Korean Novels Published in 2000's

Park, Jeong-ae

As a result of study on gender-specific representation pattern of 'multi-cultural family' of Korean novels published in 2000's, it seemed that migrant mate is typically characterized to be a 'reservoir of genuineness' which Koreans have lost and a pitiful victim of Korean-style capitalist patriarchy, irrespective of gender. Nevertheless, there are critical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So to speak, while Korean man married to migrant woman is legally and socially supported/pitied, Korean woman married to migrant man is likely to become a scorn/abhorrence of many and unspecified people. Conversely, while migrant woman married to Korean man is an object of affirmative action for assimilation, migrant man married to Korean woman is apt to be a target of blunt discrimination.

For example, a multi-cultural family in the novel of *Goodbye Circus* by Cheon Un-yeong(천운영) represents the former case. The "genuine" heroine of this novel as the other of "polluted" Korean women tries to survive by imagining "tomb" against global capitalist reality that regards her as just "sexed body", but at last finds a refuge in death.

And on the other hand, a multi-cultural family composed of Korean woman and Nepali man in *Namaste* by Park Beom-shin(박범신) is the case of latter. Gender makes queer irony in this kind of family. The woman who has fallen to the ground of social hierachy by marrying migrant worker from poor country gets to exploit the patriarchy and be reborn as a rebellious subject against the firm patriarchal nation state, in spite of herself.

Key words : Korean novels published in 2000's, multi-cultural family, gender, sexed body, representation, otherization, *Goodbye Circus*, *Namaste*

- 본 논문은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1월 11일부터 2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3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